

목포수협장 돈선거 파문

“돈 받았다” 3명 자수...작년 ‘임자도 악몽’ 재현 우려

전남 올해 21곳 조합장 선거...선관위 긴장

목포수협장 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신안군 임자농협에서 발생한 ‘돈 선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올해 21곳에서 농·수·축협에서 조합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실시된 목포수협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3명이 돈을 받았다고 자수했다. 이들 조합원은 각각 30만~220만원씩 총 285만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돈을 받은

정확한 경로와 금액 등을 파악하는 한편, 자진 신고기간을 당초 지난달 28일에서 3월 5일까지로 5일간 연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수협장선거에서 2억2000여만원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합원 2683명에게 자수권유 서한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목포수협선거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목포와 무안, 나주 등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최대한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처분을 할 예정이어서 자수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거액의 금품 살포 의혹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지난해 임자농협에서 발생한 ‘돈 선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자농협의 경우 지난해 2월 거액의 금품 선거 의혹이 불거져 마을 주민 1000여명이 조사를 받고, 당선자 박도(65)씨를 포함해 출마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돈을 받은 주민 6명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민 31명이 각각 50만~270만원씩 총 3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극심한 선거 후유증을 겪었다.

선관위는 올해 전남지역 21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가 이어지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28일 고흥군 나로도수협을 시작으로 해남농

협(3월 8일)과 완도소안수협(3월 11일) 등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목포수협장 선거의 공소시효(15일)를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합장 선거에서의 각종 불법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취재본부=이상선거사 sslee@

▲목포수협= 지난해 1962년 창립된 조합으로, 목포, 무안, 함평, 영암 등 11개 지점을 두고 있다. 총자산은 2000여억원이며, 직원 수 140명, 조합원 수는 2700명에 이른다. 여수수협과 함께 전남지역 최대 규모의 수협으로 꼽힌다.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을 화려하게 물들이며 힘찬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기량비가 내리는 다소 늦은 출발이지만 참가자들은 나주 남평교를 돌아오는 42.195km 구간에서 뜨거운 순위 경쟁을 벌이며 겨우내 잠들었던 남도의 들녘을 깨웠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만 건각 새봄 여는 힘찬 질주

화보 3면·관련기사 6·18·19면

봄 물이 들기 시작한 남도 들녘에서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6번째 질주가 펼쳐졌다.

광주일보·광주시·전남도도가 주최한 제46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남평교에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정석근·이정숙씨 남녀 풀코스 우승

이르는 구간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기량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동호인·직장인·가족 등 시민 1만여 명이 참가해 3·1 정신을 기리면서 화합과 희망의 레이스를 펼쳤다.

유체질 광주일보 사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오른 대회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축사에 이어 참가자들의 ‘만세삼창’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오전 9시 촉곡사 월드컵경기장 하늘에 울리면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다. 먼저, 풀코스 참가자들이 힘찬 합성과 함께 출발선을 떠난 데 이어 10분 간격으로 하프·5km 주자들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월드컵경기장 일대는 전국에서 온 달리기인들의 화려한 옷차림이 만들어낸 원색의 물결로 가

득했다.

풀코스 완주에 성공한 최고령 고재신(76)씨와 같은 할아버지는 물론 엄마·아빠 손을 잡고 나선 유치원 어린이까지 3·1절 마라톤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달리기인들의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 됐다.

사장님과 함께 출발선에 선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전기와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 완주를 한 인간 승리의 이야기도 쓰여졌다.

내 고장을 알리기 위해 이색복장을 한 채 42.195km 달린 이들도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풀코스 남자 부문에선 정석근(38·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씨가 2시간38분18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 타이프를 끊었고, 2009년 여자 하프 부문 우승자인 이정숙(46·충북 천안)씨는 2시간56분의 기록으로 풀코스 석권에 성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엔 광주고등법원을 목표로 3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관으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광주대학교(48회), 서울대 법학과(73학번)
- 전남대학교(법학석사)
- 제19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9기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 광주·청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주·전주·광주 지방법원장
- 광주고등법원장 퇴임(2011. 2. 16)

변호사 정갑주 올림

■ 업무개시: 2011. 2. 21. ■ 업무장소: 광주 동구 지산동 709-25
■ 대표전화: (062)234-0030, 팩스: (062)226-0050
*개업소연은 생략합니다. (회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교통통제 협조 감사드립니다

광주일보는 1일 일부 지역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을 참아가며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힘써주

신 광주시·전남도·광주시체육회·전남도체육회·광주육상경기연맹·전남지방경찰청·광주지방경찰청·광주서부경찰서·남부경찰서·나주경찰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JOYTRAVEL 조이여행사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151-1번지 FAX: (062)234-3141



- 광양에서 광양해리로 떠나는 큐슈 은천여행**
실속 ₩399,000~ 품격 ₩429,000~
불포함: 광주-광양수송비, 기사&가이드팁(40,000원)
- 따뜻한 남쪽에서 봄을 느끼는 대마도 여행 (대야고속)**
1박2일 ₩298,000 2박3일 ₩398,000
▶출발날짜: 4/14, 5/12 불포함: 국내(광주-부산)수송
-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1박2일 ₩279,000 2박3일 ₩309,000
- 오렌지호&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목포-제주도 2박3일 ₩139,000원~
장흥-제주도 2박3일 ₩159,000원~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실속 빌라형콘도

▶출발일: 3/17, 20, 26, 4/1 ▶불포함: 기사&가이드 팁

4일 ₩369,000~

상품특전 · 빗부족탕체험 · 구은계란증정

출발확정

온천의 진미 고품격 스키유 온천체험 따뜻한 봄날 야나가와 벚꽃이 + 온천체험 일본 온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우레시노리온 온천체험

4일 ₩579,000 출발일: 4/7 ₩449,000 출발일: 3/20 ₩549,000 출발일: 4/23

상품특전 · 일본전통 가이세키요리 · 노천온천체험 · 빗부족탕체험 · 구은계란증정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권 계약업체 • 공동주관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보험료 1인당, 국내상품 5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대 비용, 유류유류료 포함) • 경비(항공권, 기차/기차/버스/기차, 숙박, 식음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 상의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